

科學化 運動의 先導결의

3個項 宣誓코 即刻實踐키로

科總 定總, 10萬 科學技術人代表 2百餘名 참석

10萬 科學技術人은 一致團結하여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 先導者가 될것을 굳게 다짐함으로써 民間團體로서는 科總이 이 運動의 求心體가 되어 本格的인 活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閔寬植)는 지난 15日 科學技術會館大講堂에서 열린 第 14回 定期總會에서 「全國民의 生活의 科學化運動이 祖國近代化와 福祉社會를 이룩하는 捷徑임을 깊이 認識하고 總力을 傾注하여 汎國民運動의 旗手가 될것」을 다짐하고 3個項에 걸친 決議文을 滿場一致로 採擇, 이를 即刻 實踐에 옮기기로 했다.

이날 全國 10萬科學技術人을 代表하여 參席한 200餘代議員들은 1. 우리는 全國民의 生活의 科學化가 國民모두에게 擴散되고 汎國民運動으로 結實되도록 最大의 努力을 傾注한다. 2. 우리는 全國民의 生活科學化運動의 核心的 役軍으로서 科學精神 函養과 科學知識 普及에 積極奉仕한다. 3. 우리는 國民生活의 非科學的 弊習을 打破하고 合理的인 生活科學化運動을 爲한 支柱的 役割을 擔當한다는 3個項을 決議했다.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은 이미 73年度에 朴正熙 大統領께서 年頭記者會見때 그 必要性을 들어 提唱한바 있었다.

더우기 지난 9일에는 科技處를 年頭巡視한 자리에서 73年 1月 記者會見때 提唱했던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大의으로 展開할것을 再強調했다.

朴대통령의 이와같은 指示에 따라 科學技術處는 今年度 施策方向을 全國民의 科學化 造成事業에 두고 短, 中, 長期의 意慾인 事業計劃을 樹立 推進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科學技術團體의 總聯合體인 科總도 政府의 施策에 副應하여 “國民科學化運動 推進委員會”를 新設하고 全國民生活의 科學化운동을 汎國民運動으로 發展 승화시키는데 總力을 傾注하기로 決議까지 했다.

祖國近代化를 爲한 이러한 運動이 좀더 自發的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官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國家의 使命完遂에 盡力하게 된것은 지극히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 나라의 科學技術振興은 科學技術의 風土造成의 여하에 따라서 크게 左右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4회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여 高度經濟成長을 가져왔으며 이제 世界 最強國際列을 目標로 高度產業福祉社會 構築을 爲해 精進하고 있다.

이런때에 科學技術 風土의 底邊擴大를 爲한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 科學技術人自身이 直接 參與하여 先導者가 된다는 것은 當然하면서도 國家百年大計를 期約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全國民이 科學技術을 崇尚하고 科學技術人을 尊敬하는 社會가 이룩되어 우리가 바라는 國力 伸張이 持續化될 수 있는 轉機가 되어주기를 바란다.